



18일 월명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고등부 결승에서 마산 용마고를 꺾고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 선수단이 김응식 광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오순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나훈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일고 야구·한국전력 럭비 '유종의 미'

'광주 14위'·'전남 10위'...제99회 전국체전 열전 마감

광주, 스쿼시·근대5종·궁도 '종합 1위'...육상·수영 선전 전남, 럭비·당구 '종합 2위', 축구·볼링·궁도 '종합 3위'



광주일고 야구와 한국전력 럭비가 전국체전 마지막 날 광주·전남에 값진 금메달을 선사했다. 광주일고는 18일 월명야구장에서 열린 고등부 결승에서 마산 용마고를 8대2로 몰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일고의 전국체전 우승은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12년 만에 얻은 쾌거다. 한국전력 럭비도 고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포스코건설을 19대7로 제압, 2연패를 달성하며 전남선수단의 '다득점 효자팀'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체육회 수영팀의 선전도 돋보였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해 육성 중인 광주시체육회 수영팀은 18일 여자일반부 혼계영400m에서 4분05초6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대회 2연

패를 달성하는 등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등 12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41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69개 총 155개 획득, 종합점수 2만8천429점을 획득하며 종합 14위를 차지했다. 광주선수단은 스쿼시, 근대5종, 궁도 각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야구 소프트웨어, 산악, 보디빌딩이 종합 3위에 입상해 4년 연속 2만1천점대 이상 꾸준한 성적을 올렸다. 특히 육상 멀리뛰기·세단뛰기 1인자 김택현(광주시청)과 육상 기대주 모일환(조선대 1), 수영 평영 남상아(광주체고 3), 배영 김산하(광주시체육회), 다이빙 권하림(광주시체육회), 역도 손현호(정광고 3), 카누 김규명(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각각 연패와 다관왕에 올랐다. 양궁 박진영(광주여대 4년)은 30m에서 358점을 기록하며 대회타이 기록을 수립했고, 카누·역도·레슬링·보디빌딩·펜싱에서도 값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18일 고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럭비 남자일반부 결승에서 포스코건설을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한 한국전력 럭비팀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체육회 제공

전 종목에서 고른 경기력을 보여 내년 체전을 기대하게 했다.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76개를 따내며 3만2천708점을 획득 '종합 10위'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2009년(90회), 2010년(91회) 2년 연속 종합 10위를 차지한데 이어 8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럭비·당구(2위), 축구·볼링·궁도(3위), 요트·스쿼시(4위), 롤러·사격·산악(5위) 등이 상위랭크에 오르며 전남의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사격 김준홍(KB국민은행)·김유연(장흥군청)이 대회신기록을 수립했고, 역도 신비·신록(이상 고창고) 형제가 3관왕, 핀수영 김보경(전남체육회)·볼링 김태경(전남과학대)은 2관왕에 올

랐다. 또 핀수영 권혁민(전남체육회)·정구김동훈(순천시청)은 4연패, 자전거 김민오(강진군청)·핀수영 김보경·역도 신비는 3연패를, 역도 신비·육상 박서진(목포시청)은 2연패를 기록했고 레슬링 나홍길(전남체고)은 체급을 바꿔 전국체전 2연승 우승의 이색기록 주인공이 됐다. 전남기술과학고는 남자 배드민턴이 2008년 89체전 이후 10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올랐고, 여고 펜싱(사브르)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은 전국체전 100돌을 기념해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백희중 기자 ehsg01@kdaily.com

1승 남은 LA 다저스 WS 진출, 류현진 손에

내일 NLCS 6차전 출격...마일리와 재격돌

'빅게임 피쳐'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할 기회다.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의 명운을 걸고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CS) 6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다저스는 18일 NLCS 5차전에서 밀워키 브루어스를 5-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갔다. 1승을 추가하면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손에 넣는다. 다저스는 20일 오전 9시 39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NLCS 6차전을 치른다. 이날 다저스 선발은 류현진이다. 류현진에게는 실욕의 기회가. 류현진은 14일 밀러파크에서 치른 2차전에 선발 등판해 4⅓이닝 동안 홈런 하나를 포함한 6안타를 내주고 2실점했다. 팀이 4-3으로 승리해 안도하긴 했지만, 류현진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투구였다. 6차전 선발이 웨이드 마일리로 예상돼 류현진의 의욕은 더 자란다. 마일리는 18일 NLCS 5차전에 선발로 나섰으나, 한 타자만 상대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6차전을 대비한 '위장 전술'로 보인다. 마일리는 NLCS 2차전에서도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펼쳤고 5이닝 2피안



타 무실점의 호투로 관정승을 거뒀다. 류현진이 NLCS 6차전에서 호투를 펼쳐 팀에 승리를 안기면, 다저스는 물론 류현진 자신도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NLCS 6차전은 류현진의 개인 6번째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등판이다. 하지만 류현진은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가을 무대에서 벤치만 지켰다. 다저스는 월드시리즈까지 치렀지만, 류현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번 가을, 류현진은 클레이턴 커쇼와 '다저스 원투펀치'로 나서고 있다. 다저스가 밀워키를 제압하면 '빅게임 피쳐' 류현진도 그토록 꿈꾸던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나상호가 지난 4월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트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수원FC 필승 "PS 희망ing"

광주FC, 21일 안방 총력전



프로축구 광주FC가 수원FC를 상대로 기적의 발판을 준비한다. 광주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4위 대전시태권과 승점 8점 차이지만, 산술적으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남은 4경기 동안 전승은 필수다. 우선 5위 자리부터 사수해야 한다. 수원FC가 승점 2점 차로 5위 자리를 엿보고 있는 만큼 패배 시 곧바로 순위가 뒤집힌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광주는 보다 적극적인 공격으로 승점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8골을 기록할 정도로

강한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에이스 나상호가 3경기 연속 골(4골)로 팀 공격의 선봉에 서고, 그 뒤를 외국인 듀오 펠리페(1골 1도움)와 두아르테(2골 1도움)가 잘 받쳐주고 있다. 광주는 지난 4월 수원FC와의 홈 맞대결에서도 나상호의 멀티 골에 힘입어 5대0 대승을 이끈 바 있기에 자신감도 넘친다. 광주는 올 시즌 수원FC와 전적에서 2승 1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광주의 전술은 더욱 빛났다. 이번 라운드도 마찬가지다. 수원FC는 5위 수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원FC는 지난 라운드 무패 행진 중인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6연패를 끊어냈다. 그만큼 이번 경기는 실욕과 5위 수성이라는 목표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포기를 모르는 광주가 수원FC를 잡고 기적의 불씨를 계속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희중 기자 ehsg01@kdaily.com

'만 42세' 임창용 '그'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18 프로야구 정규리그 풍성한 기록 잔치

'노장 투혼' 임창용, 최고령 세이브 경신·3천998일 만에 선발 승 고졸 신인 강백호, 데뷔 첫 타석 홈런·고졸 신인 최다 홈런 경신



한국프로야구 2018 KBO리그가 약 7개월의 정규시즌을 마쳤다. 올해 정규리그에서도 어김없이 치열한 순위싸움 속에서 풍성한 기록 잔치가 벌어졌다.

입단 전부터 관심을 끈 kt wiz 고졸 신인 강백호는 KBO리그 데뷔와 함께 세 역사를 써 내려갔다. 강백호는 데뷔 첫 타석에서 2018 KBO리그 1호 홈런을 터트리고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역대 최초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 기록이다. 이는 '강백호 주연 홈런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강백호는 9월15일 수원 삼성전에서 시즌 22호 아치를 그려 1994년 LG 김재현이 작성한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지난 9일 수원 한화전에서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 김기태의 27홈런을 넘어선 최다 타자 신인 최다 홈런도 기록했다. 강백호는 9월20일 사직 롯데전에서 고졸 신인 최초로 3연타석 홈런을 달성하고, 이날 6타점으로 고졸 신인 한 경기 최다 타점 신기록까지 세웠다. 1976년생 투수 임창용(KIA 타이거즈)의 시간은 거꾸로 갔다. 5월13일 대구 삼성전에 마무리 투수로 출장한 임창용은 41세 11개월 9일의 나이로 최고령 세이브를 달성하며 종전 KIA 최영필의 41세 10개월 30일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임창용은 6월7일 수원 kt전에서 올 시즌 마지막 세이브를 달성하며 자신의 기록을 42세

3일로 늘렸다. 9월30일 광주 kt전에서는 불혹의 나이에도 2007년 9월 30일 현대전 이후 11년 만에 선발로 등판했으며, 8월1일 광주에서는 롯데를 상대로 2007년 이후 3천998일 만에 선발 승리를 수확하기도 했다. 임창용은 5차례의 승리 중 3번을 선발승으로 챙겼다. 한화 정우람은 9월23일 대전 KIA전에서 통산 3번째로 9년 연속 5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올 시즌 세이브 1위 정우람은 35세이브로 팀의 77승 중 절반에 달하는 경기의 승리를 지키며 올해 데뷔 13시즌 만에 개인 첫 KBO 세이브상을 받게 됐다. 두산 김재환은 처음으로 KBO리그 홈런왕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김재환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37홈런, 35홈런으로 어렵게 3위에 그쳤지만, 올 시즌 44개의 홈런포를 쏘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박병호는 역대 최초 5년 연속 30홈런-100타점, 3년 연속 40홈런을 달성하며 KBO리그 복귀 첫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김시우, 1R 1타차 2위 "출발이 좋다"

PGA투어 더CJ컵...선두는 리비

2회제를 맞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더CJ컵에서 첫날부터 한국의 간판선수들이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갖췄다. PGA투어에서 이미 2차례 정상에 오른 김시우(23)는 18일 제주 서귀포 클럽 나인브릿지(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다. 4언더파 68타를 적어낸 선두 제즈 리

비(미국)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오른 김시우는 "작년에는 고국에서 열리는 대회라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컸다"면서 "바람이 강해 힘든 하루였지만 올해는 첫날 경기를 잘 치러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시우는 "프로 데뷔를 미국에서 해서 한국에서 꼭 한번 우승하고 싶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꼭 살리겠다"고 우승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안병훈(27)도 2언더파 70타를 쳐 선두에 2타차 공동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